

◆ 特 輯 (I) ◆

東 南 亞 電 機 工 業 動 向 (IV)

싱가포르

1. 수요 동향

가. 발전기

- 싱가포르에는 현재 4개의 화력발전소에서 총 발전용량 4,513M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전력공급상황은 컴퓨터화된 통제시설을 통하여 항상 모니터가 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실현시키고 있음.
-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와 2,000년대에 대비한 원활한 전력공급역량 확보를 위하여 현재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발전설비 도입을 통하여 생산능력확장을 꾀하고 있음. Pulau Seraya 발전소는 현재 2단계까지의 설비확충이 완료되었고, 신규발전소 설비로 TUAS에 총 80억불을 투자하여 4단계 발전설비 확충을 꾀하고 있는데 동 계획에 따르면 각 단계별로 2대의 600MW 발전기를 설치하여 총 4,800MW의 추가 전력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1단계 600MW의 첫 전력생산은 98년도로 예정되어 있음.
- 이와같은 국가의 기반시설인 전력생산능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설비에서도 주 동력원을 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발전기 설치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발전기에 대한 수요도 대형용량 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공장설비용과 건축공사장용으로 발전기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KVA이상의 대형발전기시장은 미국산제품이 석권하고 있고 1KVA-1,200KVA의 중형 발전기시장은 일본산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미국산제품은 고기능과 대형발전용량으로 인하여 제품에 대한 지명도와 신뢰도를 획득하고 있으며 일본산제품은 건설부분 및 휴대용발전기 부문에서 브랜드에 대한 지명도와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동품목은 성격상 일정한 수요추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전락 연간 수요량은 금액으로 US \$300~400백만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연도별로 싱가포르 자체의 경기변화등 수요측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발전기 수입동향〉

(단위:천불)

년도		1993	1994	'95(1~6)
국가명				
미	국	102,437	110,054	37,452
일	본	73,390	77,767	55,193
영	국	29,322	33,056	18,461
말레이시아		12,298	31,477	19,940
필	란	110,826	24,778	41,987
한	국	2,338	5,658	2,483
기	타	47,734	57,732	29,048
합	계	378,345	340,522	204,564

(자료)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나. 전동기

- 싱가포르의 전동기 시장수요는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전자제품 및 공장기계화등에 소요되는 전동기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연도별로 수요되고 있는 전동기 시장규모를 보면 '93년 US \$800백만, '94년 US \$950백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95년도에도 전년대비 약 5~10%가 증가한 US \$1000백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컴퓨터산업의 활황에 따라 시장수요도 특히 동품목에 소요되는 전동기수요에서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부문에 소요되는 전동기의 대부분은 주로 일본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발국의 기술발전과 월등한 가격경쟁력으로 점차 말레이시아 및 태국등으로 부터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가정용품에 소요되는 전동기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및 중국으로부터 저가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속화되고 있는 공장자동화의 확대로 동 부문에 소요되는 전동기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품목은 주로 일본,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최근들어 말레이시아 및 태국산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산업전반에서 수요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격이 경쟁력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으며 싱가포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현지기업 및 외국계기업들의 대 해외시장 개척도 활발해지면서 '94년도에는 전년대비 59%의 급격한 신장율을 기록하였음.
- 싱가포르의 산업구조가 하이테크산업 중심으로 공장자동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고기능의 정밀전동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경쟁도 보다 심화될 전망이어서 가격도 오름세보다는 오히려 보합 또는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주로 가정용전자산업에 소요되는 저기술의 전동기는 향후 중국등으로 부터의 공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자체내 수요보다는 인근국가들의 전자산업 발전에 따라 소요되는 부품수요를 싱가포르기업들이 중계무역을 통하여 공급하는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전동기 수입동향〉

(단위:천불)

국가명 \ 년도	1993	1994	'95(1~6)
일 본	287,617	314,775	174,747
말레이시아	201,462	232,619	148,962
태 국	58,164	97,847	57,846
중 국	32,289	71,912	50,953
미 국	87,592	67,977	25,544
대 만	43,906	47,342	23,052
한 국	10,293	10,577	2,941
기 타	76,734	103,250	55,181
합 계	798,057	946,299	539,226

(자료) 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다. 전동공구

- 싱가포르의 전동공구 시장은 건축부문의 활발한 경기를 반영하여 연간 약 20%의 신장율을 시현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시장규모는 US120~140백만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와같은 신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싱가פור는 자체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일본, 독일 및 미국산브랜드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입제품중에서도 절반이상은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대만등으로 재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산제품에 대해서도 아직은 브랜드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점유율은 극히 저조한 편이지만 꾸준히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의 전망은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시장은 전통적인 수공구로부터 전동공구쪽으로 선호도가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전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전동공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대부분의 공구들이 이들제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국산제품으로 현재 DAEWOO나 KEYANG등의 브랜드가 지명도를 획득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자체수요보다 말레이지아로 재수출용이 더 많으며 미국이나 일본산 브랜드제품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활발한 홍보활동과 선전을 통하여 기존시장의 유지와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전동공구 수입동향〉

(단위:천불)

국가명 \ 년도	1993	1994	'95(1~6)
일 본	37,048	47,785	30,084
말레이지아	28,996	31,493	18,640
독 일	7,370	8,921	6,633
미 국	6,449	8,894	4,610
이 태 리	4,336	5,155	4,916
영 국	2,677	4,085	2,731
스 위 스	2,530	2,691	1,308
한 국	710	1,956	1,830
기 타	6,055	8,497	4,315
합 계	96,171	119,477	75,067

(자료) 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라. 변압기

- 변압기는 싱가포르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제품의 하나인데 그 이유로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자산업 성장세에 기인되고 '94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약 20~30%의 증가율을 보였던 동품목의 수요는 US \$ 700백만의 수요가 '94년도에는 US \$ 900백만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금년도에는 약 US \$ 950백만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자체생산규모는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태국 및 미국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반면, 수입 또한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거의 절반이상을, 그다음으로 태국, 홍콩, 독일 및 대만등의 국가로부터 들여오고 있음.
- 싱가포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및 말레이시아 제품중 일본산 제품은 주로 컴퓨터 및 자동화기기등 고기술부문에 많이 쓰이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제품은 다소 기술수준이 낮은 가정용전자제품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 부문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새로운 공급국가로 신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산 제품은 이미 경쟁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저기술제품부문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 및 중국산제품의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등으로 대만이나 한국산제품이 향후에도 고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반면에 일본산 및 독일산 브랜드제품은 컴퓨터 및 기타 고기능부문에서의 시장지배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노동력 및 기타 비용상승에 따른 생산시설의 인근국가들로 이동이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에는 싱가포르는 동품목의 공급과 수용지보다는 인접국가들로의 제품이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분배중심지로서의 기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변압기 수입동향〉

(단위:천불)

국가명 \ 년도	1993	1994	'95(1~6)
말레이시아	186,305	212,869	126,624
일본	163,857	205,280	104,981
태국	44,875	66,429	48,921
홍콩	45,467	63,253	29,498
독일	31,258	53,167	27,092
대만	59,943	50,291	25,271
중국	11,669	40,229	27,248
미국	20,551	32,322	23,276
한국	22,531	21,715	15,195
기타	66,250	114,205	61,176
합계	652,706	859,760	489,282

(자료)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마. 개폐기

- 싱가포르의 전기회로보호용 개폐기 수요는 지난해에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는데 '93년 연간 수요 약 US \$110백만에서 '94년도에는 US \$150백만으로 증가하여 약 35%의 성장율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에는 다소 둔화되긴 해도 약 US \$170백만의 수요증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는 주로 지속적인 경기활황에 따른 산업설비 증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모든 전기설비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개폐기가 설치되어야 할 뿐아니라 모든 동력원에도 회로차단기개폐기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임.
- 고기능의 설비 및 기계장치에 소요되는 개폐기시장은 일본산이 시장을 지배하고 독일, 프랑스산제품등이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산제품은 주로 자동화 장비와 컴퓨터관련기기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은 말레이시아가 주로 공급을 맡고 있고 중국의 진출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말레이시아 및 태국산제품은 품질이 향상되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강력한 한국산제품의 경쟁국가로 부상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스위치나 서킷브레이크등의 개폐기제품은 싱가포르에서도 UL, IEC 또는 BS규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들은 후발국가들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컴퓨터등에 소요되는 고품질 고기술제품들은 기술우위에 따른 경쟁력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개폐기 수입동향〉

(단위:천불)

년도		1993	1994	'95(1~6)
국가명				
일본		273,025	424,655	226,773
미국		129,987	163,213	165,494
말레이시아		110,061	136,713	64,341
독일		50,670	54,035	35,201
홍콩		24,802	42,308	17,332
대만		41,742	42,045	22,087
프랑스		28,187	38,147	21,046
중국		15,337	34,277	28,313
한국		8,224	9,657	7,070
기타		66,282	98,078	64,464
합계		748,317		652,121

(자료)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바. 변환장치

- 싱가포르의 변환장치 수요는 주로 컴퓨터산업의 활황에 힘입어 '94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 거의 60%의 신장율을 기록하였는데 '93년도 싱가포르의 연간 수요규모는 US \$300백만이었으나 '94년도에 들어와 US \$480백만으로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약 US \$600백만으로 늘어나 20~30%의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컴퓨터등에 소요되는 고급품은 일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기타 오디오 및 전력공급장비등에 소요되는 변환장치는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가정용 전자 생산설비의 인근국가 이전에 따라 동품목에 소요되는 변환장치의 수요는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
- 가격은 금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 및 중국산 제품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가정용기기류에 소요되는 변환장치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일본산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컴퓨터용 제품들의 수요는 당분간 활황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변환장치 수입동향〉

(단위:천불)

국가명 \ 년도	1993	1994	'95(1~6)
일본	66,256	120,027	76,233
말레이시아	48,580	108,600	68,895
대만	28,621	34,220	21,978
미국	22,771	29,911	29,317
중국	7,765	29,222	19,382
독일	25,147	24,894	19,930
홍콩	14,228	23,010	14,149
태국	10,661	2,686	17,715
한국	2,823	63,501	3,090
기타	45,510		44,317
합계	272,362	466,180	315,006

(자료) 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사. 배전제어 장치

- 싱가포르의 배전제어장치 수요는 경기활황에 따른 산업설비 확충과 공장설비자동화 확산추세에 따라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수요의 대부분은 미국, 일본 및 독일산 제품으로서 대부분의 설비 및 기계류들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배전제어장치의 이들 3개국가들의 점유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음. 연도별 연간 수요규모를 보면 '93년 US \$ 340백만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95년도에는 유사한 증가세를 기록하여 연간 수요규모는 US \$ 380백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저기술부문에서는 싱가포르 자체생산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수입액중의 약 20%는 또다시 말레이시아, 프랑스, 태국등지로, 그리고 국내생산은 말레이시아, 미국, 독일 및 홍콩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많은 기계 및 설비가 주로 일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비확장이나 대체시에도 일본산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배전제어장치에 대한 일본산제품의 지명도와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신설비부문에서는 유럽 및 일본산제품이, 그리고 미국산제품은 고기능의 컴퓨터 통제설비부문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자동화부문에서 배전제어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 대부분의 기계나 설비에 복합적으로 구매되고 있는데다 싱가포르 기업들의 구매패턴도 고급품위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품목의 경우에는 가격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고 기능과 체화된 기술의 적합성여부에 보다 더 좌우되고 있음.

〈배전제어장치 수입동향〉

(단위:천불)

년도		1993	1994	'95(1~6)
국가명				
일	본	103,386	168,868	86,530
독	일	67,754	74,916	41,988
미	국	30,357	48,878	26,969
말레이시아		20,902	20,460	14,276
영	국	11,976	16,883	8,892
홍	콩	4,041	8,754	3,688
오스트레일리아		6,636	7,989	4,119
중	국	1,919	5,968	17,744
대	만	4,773	4,619	4,710
한	국	1,551	1,766	2,555
기	타	23,499	31,673	31,962
합	계	276,794	390,774	243,433

(자료) 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아. 전 선

- 싱가포르의 케이블류 수요는 최근 몇년간에 걸쳐서 크게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그동안 싱가포르에서의 각종 건설사업 및 기반시설구축에 따른 수요증대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93년도 연간수요량은 금액으로 US \$ 600백만에 달하였고 '94년도에는 US \$ 650백만으로 증가하였으나 '95년도에 들어와서는 다소 정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주요 기반시설이나 설비신증설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반면에 인근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중국이 급속하게 케이블 공급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미국 및 영국등이 고급품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은 그간 주요공급 국가로서의 위치를 말레이시아산 제품과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다소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역국가들의 경제활성화로 인하여 동품목시장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고급품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외에도 지역국가들로 제품을 유통시키는 분배센터로서의 기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에는 주요 브랜드제품을 취급하는 많은 유통업체들이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며 이에따라 케이블가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입찰을 통하여 구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선 수입동향〉

(단위:천불)

국가명 \ 년도	1993	1994	'95(1~6)
말레이시아	132,126	176,851	94,567
일 본	115,056	119,517	44,248
대 만	62,524	61,144	37,112
미 국	48,456	55,043	31,849
태 국	30,040	30,935	9,808
영 국	29,484	29,759	11,661

중	국	19,935	27,132	21,332
독	일	13,377	24,000	13,510
한	국	25,118	23,722	12,368
기	타	85,015	89,230	43,101
합	계	561,131	637,333	319,556

(자료) 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2. 경쟁동향

가. 발전기

- 발전기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영국, 말레이시아 및 핀란드 5국이 싱가포르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면서 시장을 분할지배하고 있는데 소형 및 중형의 경우에는 거의 일본산제품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중대형의 경우에는 미국산제품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주로 중형발전기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의 경우에는 대형발전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한국산제품의 경우에는 공급수량의 변동폭이 크고 일정한 추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93년도의 경우에는 주로 중형발전기에 치중하였으나 '94년도에는 중대형으로 바뀌고 '95년도에도 중대형발전기의 공급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업체들은 한국산제품이 아직은 일본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격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싸게 오판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무엇보다도 경쟁력 확보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현재 널리 브랜드지명도를 획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일본 및 미국산으로 이들제품들은 다양한 모델들과 브랜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주요 브랜드를 보면, 일본산제품으로서 DENYO, KEBOTO, HONDA, ONAN, YANMA 등을 들 수 있고 미국산제품으로는 CUMFORD, F.G. WILSON, KOHLER 등이 있음.

나. 전동기

- 말레이시아가 개당 US\$1대의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싱가포르 시장의 약 4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및 일본이 12~1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약 3~4%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통상 수출가격수준이 US\$2.30~2.50으로서 대만보다는 다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개당 평균수출가격이 US\$1.10~1.20수준으로 한국에 비하여 훨씬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저가품의 경우에 갈수록 경쟁이 격심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주 공급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이어 중국산제품의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산제품의 경우에는 중급품수준을 유지하면서 미미하긴 해도 점진적으로 공급량확대를 실현시키고 있어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보다 고부가가치가 있는 컴퓨터 및 자동화기기용 제품의 공급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보다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됨.
- 대만의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년 30~40%의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반면, 홍콩은 중국보다는 높고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태국은 말레이시아 다음의 두번째 공급국가이면서도 단위당 평균수출가격은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고가제품의 수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브랜드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보면 PANASONIC (JAPAN), EURODRIVE(GERMANY), FUJI(JAPAN), TECO(TAIWAN), NISSEI(JAPAN), TATU-NG(TAIWAN), BALDOR(USA), TOSHIBA (JAPAN)등으로 일본산 제품이 많고 그밖에 미국, 독일 대만등의 제품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산제품의 경우에는 브랜드지명도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동품목 취급업체들은 현재 특별한 용도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통상 원산지나 브랜드에 관계없이 품질면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향후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전동공구

- 싱가포르의 전동공구시장은 일본 및 말레이시아가 석권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약간씩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6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독일 및 미국산제품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산제품은 브랜드지명도와 아울러 품질면에서도 주류 고가품위주로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이태리등이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미국이 앞서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산제품의 전망도 다소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연도별 한국산공구류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93년도 불과 0.7%에서 '94년도에는 1.6%로 늘어났고 '95년 6월 현재 전년 대비 2.4%의 신장율을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도 일본산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싱가포르의 전동공구시장의 경쟁도 따라서 치열해지고 있으며 가격덤핑사례마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만큼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장 큰 인지도와 선호도를 향유하면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보면, BOSCH(GERMANY), MAKITA(JAPAN), BLACK /DECKER(USA), TOSHIBA(JAPAN), FESTO(USA), ROTHERBERGER(NETHERLAND), AEG(GERMANY)등이 인기를 모으고 있음.

라. 변압기

- 싱가포르의 변압기시장은 말레이시아 및 일본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태국, 홍콩, 독일, 대만 및 중국등이 약 35%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은 현재 이들 국가들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약 2.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도별로 불규칙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산제품은 아직도 지명도나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한채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한국산제품은 소형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만에 비해서도 가격면에서 다소 우세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산제품은 컴퓨터부문에서 거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산제품의 진출이 늘어날수록 범용제품의 경쟁력은 가격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고 동부문에서의 한국산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음.
- 싱가포르자체 생산실적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연간 수출 실적이 US\$300백만을 초과하고 있고 이들중 절반이상이 말레이시아로 다시 나가고 있는 반면, 그밖에 동품목의 대싱가포르 수출국들인 일본, 홍콩, 태국, 미국, 한국 및 독일등이 주요 수입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평균적으로 개당 US\$0.35에 달하는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고, 수출하는 제품은 평균 개당 US\$0.20수준으로서 수입품에 비하여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수입품중 30%이상을 다시 제 3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개당 US\$0.32~0.35에 수입하여 US\$0.38~0.40에 재수출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상은 말레이시아가 수입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미국, 태국, 일본등이 주요 수입국으로 되어 있음. 수입품중 브랜드지명도를 바탕으로 시장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ABB(SWEDEN), SHODEN(JAPAN), MEIDEN(JAPAN) 및 GE(USA) 등이 있음.

마. 개폐기

- 수요증대에 따라 늘어나는 개폐기 시장확대의 대부분은 일본, 미국 및 말레이시아 3개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으며 이들 3개국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보면 '93년도 68.5%에서 '94년도에는 69.4%로 약 1%가 늘어났고 '95년도 상반기중에는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94년도 전년대비 연간 약 40%의 급격한 수입증대를 기록하고 있는 동품목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일본(55%), 홍콩(71%), 중국(123%) 및 태국(99%)등으로서 이들 국가들이 공급증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약 17%의 증가율을 보여 국가 전체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현재 전체시장 점유율은 약 1%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싱가포르 자체생산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수입액대비 약 40%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제품들은 주로 말레이시아, 일본 및 미국등으로 수출되고 수입액에서 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상이 말레이시아로 재수출되고 있어 싱가포르의 동품목에 대한 분배센터로서의 기능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전기용품에 소요되는 스위치제품이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새로운 경쟁기업들이 더욱더 활발한 마케팅활동으로 기존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스위치기어에서는 MEIDEN(JAPAN), ABB(SWEDEN), SCHNEIDER(SWISS), FUJI(JAPAN) 및 HITACHI(JAPAN) 등이, 스위치류에서는 MK(UK) 및 ABB(SWEDEN)사등이 우수한 품질과 수요자들의 신뢰속에서 형성된 브랜드지명도를 보다 견고하게 다지는 한편 늘어나고 있는 신흥공업국가들의 도전속에 일부 제품들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바. 변환장치

- 변환장치의 경우에는 일본이 전체시장의 약 4분의 1정도를 점유하면서 주로 컴퓨터용의 소형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일본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서 오디오등 가정용 전기기기용 제품중심으로 그리고 미국도 컴퓨터등 고기능 첨단제품위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특수용도의 대형제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동품목의 경우에는 대만의 진출도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전체시장의 약 7%정도를 점유하면서 말레이시아 다음의 주요 공급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20%이상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1%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연도별로도 안정적인 공급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제품도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동품목시장에 있어서도 주요 생산국의 하나로서 '93년도까지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았으나 생산시설의 이동에 따라 '94년도에는 수출실적이 수입의 80%에 미달하였고 금년에는 더욱더 하락하여 이 비율이 약 70%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이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수요 증가율이 이보다 더 높아 수입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산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극히 미미하고 브랜드지명도가 높은 NDK(JAPAN), NIKKEI(JAPAN), AET(JAPAN), HYQ(MALAYSIA), PHILIPS(NETHERLAND) 및 RAKON(MALAYSIA)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한국산제품이 가격이나 기타 비가격경쟁력에서 개선되지 못할 경우 말레이시아와 중국 및 대만제품의 경쟁력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미한 점유율 수준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사. 배전제어장치

- 동품목은 일본, 독일 및 미국산제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3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70%를 넘어서고 있고 이중 약 절반은 일본산으로서 일본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영국, 홍콩, 중국 및 대만으로 상호간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중 중국 및 네델란드산 제품이 급격한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은 '94년중 전년대비 211%의 증가율을 보였고 금년중으로 말레이시아를 앞질러 일본, 독일 및 미국에 이어 4위의 공급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고가품의 경우에는 일본, 독일 및 미국등 선진국제품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기계나 장비제조업체들이 판매되는 기계설비의 일부로서 동품목을

함께 공급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며 저가품의 경우에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설계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형태가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품목만의 독자적인 수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현재 싱가포르에만 약 30여개사 정도로 추정되는 동품목제조업체들이 있고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수요 충족외에도 말레이시아 및 미국등으로 역수출되기도 하며, 현재 약 US\$400백만에 달하는 수입액중에서도 약 20~30%는 다시 재수출되고 있어 싱가포르의 동품목 분배센터로서의 활발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산제품은 여타 전기제품과 마찬가지로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현재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RITTAL(GERMANY), HIMEL(USA), ABB(SWEDEN), SAREL(JAPAN), LEGRAND(GERMANY), MOELLER KLOCKNER(GERMANY) 등의 브랜드제품이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제품의 우수성으로 전체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아. 전 선

- 전선류는 다른 전기제품들에 비하여는 수입 성장율이 다소 완만하여 '94년도 전년대비 약 1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95년도에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인데 이는 국내수요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다소 명암이 교차하고 있어 일본, 대만, 영구 및 한국등은 정체 또는 감소추세에 있고 반면 말레이시아, 미국, 독일 및 중국등은 평균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고 있음.
- 한국은 다른 전기제품에 비하여 전선류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으로 현재 약 4%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해마다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나 중국산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차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등이 지배하고 있는 고급품시장에서는 여전히 브랜드지명도나 신뢰도에서 처지고 있기 때문임.
- 현재 시중에는 SIGMA(MALAYSIA / TAIWAN), BICC(UK), FUJIKURA(JAPAN), CAROL(USA) 및 BELDEN(USA) 등의 브랜드제품이 널리 알려져 있음.